



내신 기출

국어 천재 박영목 (1학기)

총력만능국어

www.chongmanguk.co.kr

[교재 구입]

풀버전] 네이버 검색 '총만국'

<<내신 기출 국어 천재 박영목>>

◆차례◆

1. 마음을 담은 언어

(1) 언어 예절과 화법의 다양성

대화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1쪽 (39문제)

(2) 소통하는 글쓰기

영훈이의 역사 누리방_학생 글-----18쪽 (22문제)

2. 능동적 읽기와 주체적 해석

(1) 사회적 대화로서의 글 읽기

등나무 운동장 이야기_정지용-----29쪽 (40문제)

(2) 자신의 관점에서 문학 작품 읽기

허생전_박지원-----48쪽 (51문제)

(3) 독서 과정을 성찰하며 책 읽기

초신성의 후예_이석영-----77쪽 (29문제)

3. 우리말 바로 쓰기

(1) 올바른 발음과 표기-----91쪽 (61문제)

(2) 한글 맞춤법의 원리와 내용-----108쪽 (65문제)

(3) 바람직한 의사소통 문화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이란 무엇인가-----126쪽 (6문제)

4. 문학의 갈래와 구조

(1) 향수_정지용-----131쪽 (50문제)

(2) 종탑 아래에서_윤홍길-----149쪽 (58문제)

(3) 두근두근 내 인생_김애란 원작 / 최민석 외 각본-----182쪽 (41문제)

(4) 수오재기_정약용-----205쪽 (43문제)

5. 매체와 설득

(1) 매체 자료 바로 읽기

매체 자료, 어떻게 읽어야 할까-----224쪽 (14문제)

(2) 설득하는 글 쓰기

나와 지구를 위해 손수건을 사용합시다_학생 글-----231쪽 (10문제)

▶정답 -----237쪽

▶해설 -----241쪽

(버전: 2020.03)

1-(1) 대화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① '대화'와 '대화의 원리'의 개념

- ① 대화: 두 사람 이상이 모여 말로써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주고받는 의사소통 방법
- ② 대화의 원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태도나 규칙

순서 교대의 원리	적절하게 순서를 지키며 말하기
공손성의 원리	상대방을 존중하며 공손하게 말하기

② '대화'를 잘 하기 위한 듣기·말하기 방법

① 상황과 대상에 맞는 언어 예절 갖추기

'언어 예절'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언어로 표현하는 방식이 사회적으로 관습화된 것임.
→ 화자와 청자의 관계, 대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언어 예절을 지켜 말해야 함.

■ 상황에 따른 언어 예절

사과할 때	잘못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미안하다는 말을 분명히 하기
	변명을 늘어놓거나 상대방을 탓하지 말기
	존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에 유의하기
부탁할 때	상대방의 처지와 상황 살피기
	부담 덜 느끼게 공손하게 말하기
	부탁하는 이유 설명하기
건의할 때	부탁할 때처럼 상대방의 상황 살피고 공손하게 말하기
	공적인 상황에서는 적절한 높임 표현 사용하고 정중하게 표현하기

■ 대상을 고려한 언어 예절

- 나와 대화하는 상대방(청자)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 파악하기
-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존중하고 배려하며 말하기

② 듣기·말하기 방법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기

개인이나 집단이 살아온 사회·문화적 환경과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적 특색이나 나이 등에 따라 듣기·말하기 방식에 차이가 남.

■ 개인적 성향에 따른 차이

- 직설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우회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음.
- ↳ 상대방이 어떤 듣기·말하기 특성을 지녔는지 고려하여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자세를 지녀야 함.

1-(1) 대화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른 차이

세대별 차이	청소년 세대는 신어와 준말을, 노년 세대는 예스러운 표현을 많이 쓰는 것처럼 세대에 따라 듣기·말하기 방법이 다르게 나타남.
지역별 차이	지역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정서가 녹아 있는 다양한 방언이 존재함.

- ↳ 개인의 듣기·말하기 방법은 세대와 지역의 문화가 반영된 것이므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함.
- ↳ 공적인 상황에서는 의사소통의 원활함을 위해 표준어를 사용함.

1-(1) 대화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다음>

(가)
 명찬 : 연호야, ㉠오늘 나 대신 청소 좀 해 줘.
 진호 : 음, 나 오늘 옆 반 애들이랑 축구 시합을 하기로 했는데……. 왜? 너 무슨 일 있어?
 명찬 : 그냥 좀 바빠서 그래. ㉡쪼쪼하게 굴지 말고 좀 해 줘.
 연호 : 야, 너는 부탁하는 애가 뭐 그러냐?

(나)
 소희 : 재영아, 어제 조별 모임 있었는데 왜 안 왔어?
 재영 : 아, 맞다. 깜빡했다.
 소희 : 너 기다리느라 한 시간 동안 다들 아무 것도 못했어.
 재영 : 그래? 미안하다. 근데 나도 사정이 있었어. 갑자기 중요한 약속이 생겼거든……. (부루퉁한 표정을 지으며) 조장인 네가 모임 전에 한 번 더 연락해 줬으면 좋았을텐데. 어쨌든 미안.
 소희 : ㉢너 정말 미안한 거 맞니?

동성고등학교 (서울)

1. (가)의 ㉠과 ㉡에서 지키지 않은 공손성의 원리를 모두 고르면? (정답 2개)

- ① 상대방이 부담스럽지 않게 말하기
- ② 자신의 탓으로 돌려서 말하기
- ③ 상대방을 비방하지 말고 칭찬하며 말하기
- ④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말하기
- ⑤ 동의하며 말하기

동성고등학교 (서울)

2. (나)의 '소희'가 ㉢과 같이 말한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 ① 재영이 부적절한 준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였다.
- ② 재영이 자신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인정하지 않았다.
- ③ 재영의 표정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
- ④ 재영이 자신의 잘못임에도 상대 탓을 하였다.
- ⑤ 재영이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표현을 하지 않았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주제는 “대화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입니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여러분이 보낸 사연을 살펴보고 이야기를 해 보려 합니다.

대화는 두 사람 이상이 모여 말로써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주고받는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하지만 모든 대화가 생각대로 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여러분은 대화하면서 어려움을 느낀 경험이 있나요? 대화하다가 마음에 상처를 받거나 반대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 적은 없나요? 다음은 대화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학생들이 보내온 사연입니다. 함께 살펴보고 대화를 잘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나) 대화할 때에는 서로 적절하게 순서를 지키며 말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혼자 계속해서 말하거나 상대방의 말을 가로채면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공손하게 말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대화의 원리이죠. 그리고 대화할 때에는 무엇보다 상황과 대상에 맞게 언어 예절을 갖추어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언어 예절’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언어로 표현하는 방식이 사회적으로 관습화된 것을 가리킵니다. 언어 예절을 갖추어 대화하려면 말하는 이와 듣는 이 사이의 관계, 대화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서로의 관계와 대화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으면, 말하는 내용이 올바르더라도 오해가 생기거나 감정이 상하는 등 이런저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학생들이 보내온 사연을 함께 듣고, 궁금증을 해결해 볼까요?

(다) ‘사과’와 관련한 재영이의 사연을 들어 봅시다.

제가 친구에게 잘못된 일이 있어 사과를 했는데 친구는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사과의 말을 잘하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저는 이렇게 했어요.

소희 : 재영아, 어제 조별 모임 있었는데 왜 안 왔어?

㉠ 재영 : 아, 맞다. 깜빡했다.
 소희 : 너 기다리느라 한 시간 동안 다들 아무것도 못했어.
 재영 : 그래? 미안하다. 근데 나도 사정이 있었어. 갑자기 중요한 약속이 생겼거든……. (부루퉁한 표정을 지으며) 조장인 네가 모임 전에 한 번 더 연락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미안.
 소희 : 너 정말 미안한 거 맞니?

(라) ‘부탁’과 관련한 명찬이의 사연을 들어 봅시다.

1-(1) 대화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부탁할 때에도 방법이 있나요? 제가 부탁하면 상대방이 기분 나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했어요.

명찬 : 연호야, 오늘 나 대신 교실 청소
㉠ 좀 해 줘.

연호 : 음, 나 오늘 옆 반 애들이랑 축구 시합을 하기로 했는데……. 왜? 너 무슨 일 있어?

명찬 : 그냥 좀 바빠서 그래. 껌껌하게 굴지 말고 좀 해 줘.

연호 : 야, 너는 부탁하는 애가 뭐 그려 나?

(마) 다양한 듣기·말하기 방법과 관련한 사연을 들어 봅시다.

저는 할머니나 할아버지와 같이 연세가 많으신 분과 대화할 때에 소통이 잘 안 됩니다. 어제도 급히 집을 나가는 길에 옆집 할아버지와 마주쳤는데요, 어디 가느냐고 물으셔서 친구 생파에 간다고 했더니 “친구가 생파를 가져다 달래?”라고 하셔서 어리둥절했어요. 어떻게 해야 대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다음 달에 아버지께서 서울로 전근을 가시는 바람에 저도 서울로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생겼어요. 저는 고향 사투리가 편한데, 전학을 가면 서울말만 써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예요. 지금까지 쓰던 사투리를 그대로 쓰면 안 되나요?

최근에 친구에게 서운한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새로 생긴 떡볶이 가게를 지나가면서 친구에게 “배고프지 않아? 여기 떡볶이 엄청 맛있대.”라고 했어요. 친구는 “그렇구나.”하고 말더군요. 저는 같이 떡볶이를 먹자는 뜻으로 말을 꺼낸 건데 친구가 그렇게 반응하니까 서운했어요. 이런 일이 전에도 몇 번 있었습니다. 제가 서운해하는 게 이상한가요?

(바) 지금까지 “대화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대화는 말로써 상대방과 마음을 나누는 일입니다. 대화를 원활하게 하려면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고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하며,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듣기·말하기 태도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의 관계도 원만하게 이어 나갈 수 있지요. 여러분 모두가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여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김해삼방고등학교 (경남)

3.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라디오 방송 담화로 문어체를 사용하여 공적인 말하기의 모습이 나타난다.
- ② 의사소통에 불편함을 겪는 원인을 세대별로 조사하여 듣는 이에게 알려주고 있다.
- ③ 가상의 사례를 통해 문제에 대한 청자의 호기심과 주의를 이끌어 내고 있다.
- ④ 질문을 통해 말하고 있는 주제에 대한 청취자들의 적극적인 반응을 유도하고 있다.
- ⑤ 청중의 응답을 이끌어내고 반응을 확인하여 청중과의 상호작용을 강화하고 있다.

김해삼방고등학교 (경남)

4. ㉠~㉢에 대해 평가한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 재영은 변명과 상대방을 탓하는 태도로 말하기를 하고 있다.
- ② ㉡의 명찬은 순서교대의 원리에 어긋나는 말하기를 하고 있다.
- ③ ㉢은 세대 간의 언어차이로 인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
- ④ ㉢은 사회 문화적 특성에 따른 차이로 언어생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 ⑤ ㉢은 개인의 성향차이로 인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다.

김해삼방고등학교 (경남)

5. 위의 글을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1) ㉡에서 부탁하는 말하기를 하는데 적절하지 않은 점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 기술하십시오.

(2) 윗글을 통해서 볼 때, 듣기·말하기를 할 때 갖추어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 서술하십시오.

1-(2) 영훈이의 역사 누리방

① '쓰기'의 개념과 특성

- ① 개념: 글로 의미를 구성하여 독자와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 작용
- ② 특성
 - 쓰기 맥락을 고려하여 수집한 정보를 과정에 따라 조직하고 표현하는 의미의 구성 과정
 - 독자가 처해 있는 각각의 상황(배경지식, 관심사 등)에 따라 다양하게 읽히고 수용됨.

② '쓰기'의 과정

계획하기	글을 쓰는 목적과 주제, 예상 독자, 매체 등을 생각하며 쓰기 계획을 세우기
▼	
내용 생성하기	경험이나 배경지식 또는 책, 신문,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 독자가 흥미 있어 할 만한 내용 마련하기
▼	
내용 조직하기	독자가 잘 이해하고 인상 깊게 읽을 수 있게 내용을 조직함.
▼	
표현하기	글쓴이의 생각이나 느낌 또는 자료를 인용·사용하여 내용을 표현함.
▼	
고쳐쓰기	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내용이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구성되었는지 검토하고 수정함.

③ 제재 정리

■ <영훈이의 역사 누리방>

갈래	수필(인터넷 블로그 글)	성격	반성적, 교훈적
제재	청기와와 관련된 경험과 그로부터 얻은 깨달음		
주제	충분한 조사와 신중한 판단의 중요성		
특징	① '경험-깨달음'의 구조를 통해 글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② 신문 기사와 책 등 여러 자료에서 조사한 내용을 활용하여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내용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③ 시각 자료를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내용을 더욱 생생히 전달하고 있다.		

■ 이 글의 내용 짜임

경험	할아버지 덕 마당에서 청기와를 발견하고 그것이 조선 시대 청기와와 비슷하다고 생각함.	→	여러 자료를 조사해보고 자신이 발견한 것이 조선 시대 청기와임을 확신함.	→	전문가로부터 자신이 발견한 청기와가 조선 시대 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실망함.
⋮					
깨달음	어떤 일에 확신을 가지려면 충분한 조사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을 깨달음.				

↳ '인터넷 블로그' 매체를 사용하여 자신의 경험과 깨달음을 솔직하게 드러냄.

■ 인터넷 매체의 특성

인터넷 블로그	...	① 많은 독자에게 글을 쉽게 전달할 수 있음. ② 독자와 즉각적으로 소통할 수 있음.
---------	-----	--

↳ 활발한 사회적 사회 상호 작용이 가능함.

■ 이 글에 나타난 쓰기의 특성

영훈 → 블로그 글	영훈이 청기와와 관련된 경험과 자료에서 얻은 내용을 종합, 조직하여 블로그에 표현함.	의미의 구성 과정
독자 → 블로그 글	예상 독자를 고려하여 내용을 마련하고 '경험-깨달음'의 구조로 조직함.	예상 독자와의 상호 작용
영훈 ⇄ 독자	독자는 각각의 상황과 배경지식에 맞게 다양하게 글을 수용함.	독자의 다양한 반응 야기
	댓글을 통해 서로 의견을 교환함. (독자와 필자가 소통함.)	사회적 상호 작용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영훈이의 역사 누리방

가통
사진
동영상
알림
방영록

영훈왕자

인물 소개 > 쪽지 > 이웃 추가 >

전체 보기 (30)

일기장 (10)

역사 이야기 (1)

역사책 읽기 (19)

[역사 이야기] (1)
목록 보기 [오락 보기] | 열서 보기

'청기와' 발견 사건 2000년 0월 00일

오랜만에 할아버지 댁을 방문한 어느 주말이었다. 마당에 나무를 심고 계시는 할아버지를 도와 드리다가 땅속에 묻혀 있는 돌 조각을 발견했다. 꺼내 보니 내 손바닥만 한 크기의 기와였다. '할아버지 댁은 기와집도 아닌데 왜 땅에 기와가 묻혀 있을까?' 하고 생각하며 기와를 살펴보면 나는, 이것이 언젠가 국립고궁박물관에 갔을 때 전시되어 있던 조선 시대 청기와 색깔과 비슷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보니 할아버지 댁은 경복궁과 아주 가까웠다. '혹시 이게 조선 시대 청기와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불현듯이 떠올랐다.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그 기와를 집에 가져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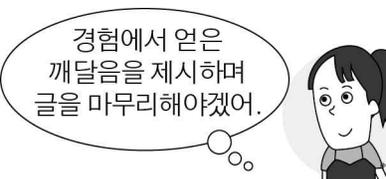
내가 발견한 기와가 조선 시대 유물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우선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았다. 경복궁 내 여러 곳에서 청기와가 출토되었다는 신문 기사가 나왔다. 신문 기사에 나온 기와의 색은 내가 발견한 것과 거의 똑같아 보였다. 당장 도서관으로 달려가 관련 책을 찾아보았다. 《세종실록》에 '청와(靑瓦)'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고, 《문종실록》에는 근정전과 사경전에 청기와를 덮었다는 기록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광해군 대를 마지막으로 《조선왕조실록》에서 더 이상 청기와를 제작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중략)



진짜 유물이라는 확신이 든 나는 전문가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전문가를 통해 기와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었고, 어디에 기증하면 좋을지 조언을 얻고 싶어였다. 나는 문화유산 분야의 전문가로 유명한 한 대학교수님께 찾아봐어도 되는지 전자 우편으로 여쭙었다. 다행히 와도 좋다는 답장을 받았다. 답장을 받자마자 바로 찾아가 뵙고 기와를 보여 드렸다. 부푼 기대감으로 가슴이 떨렸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교수님께서 기와를 보시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말씀하셨다.

“이건 페인트칠을 한 요즘 기와란다. 조선 시대 기와는 이렇게 매끄럽지 않아. 아마 근래에 다른 건물 공사 때 쓰인 기와가 아닐까 싶구나.”

나는 민망하여 얼굴이 빨개졌다. 아름다워 보였던 기와의 빛깔이 순간 바랜 것처럼 느껴졌다. 그동안 기대감에 들떠 있었던 내 마음도 이성을 찾아 차분해졌다.



믿는 대로 보인다고 한다. 조선 시대 청기와였으면 하는 마음에 설불리 그렇게 단정 지었고, 다른 가능성을 제외하자 조사한 내용 모두가 다 그럴듯하게 여겨졌다. 어떤 일에 확신을 가지려면 충분히 조사한 다음 신중하게 판단해야 했는데, 들뜬 나머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성급하게 판단해 버린 것이다.

금정고등학교 (부산)

1.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영훈이가 겪었던 경험으로 글을 시작하고 있군.
- ② 다양하게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을 제시하여 내용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군.
- ③ 마지막에 교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사실감있게 상황을 제시하고 있군.
- ④ 상황의 반전을 통해 신중한 판단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군.
- ⑤ 경복궁에서 출토된 청기와 사진을 추가하면 영훈이가 발견한 청기와와 눈으로 비교할 수 있겠군.

금정고등학교 (부산)

2. ㉠~㉣ 중 윗글과 관련된 것으로만 모두 묶은 것은?

<보기>

얼마 전 있었던 '청기와 발견 사건'을 글로 어떻게 써보지?

- 글을 실을 매체 : ㉠인터넷 신문기사
- 그 매체를 선택한 이유는?
 - ㉡독자와 즉각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
 - ㉢한 명의 독자에게 출판된 글을 전달할 수 있다.
- 예상 독자 : ㉣역사에 관심이 있는 누리꾼들
- 예상되는 독자의 반응 : 재미있는 경험이다. 뜻깊은 경험이다. 청기와와 관련한 독자 자신의 경험 등
- 예상되는 독자의 반응이 다양한 이유는?
 - ㉠각각의 독자가 처한 상황과 배경지식이 다르기 때문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⑤ ㉢, ㉣, ㉣

금정고등학교 (부산)

3. <보기>의 대화에서 보검이의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2가지 적으시오.

<보기>

보검 : 선생님. 보이루~!

선생님 : (어리둥절하여) 응?

보검 : 선생님. 학교에 남는 교과서 좀 빌려주세요.

선생님 : 왜 그러니?

보검 : 그런 게 있어요.

<조건> 문장형태로 서술할 것
 <형식> 첫째, ~이다. 둘째, ~이다.

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오랜만에 할아버지 댁을 방문한 어느 주말이었다. 마당에 나무를 심고 계시는 할아버지를 도와 드리다가 땅속에 묻혀 있는 돌 조각을 발견했다. 꺼내 보니 내 손바닥만 한 크기의 기와였다. ‘할아버지 댁은 기와집도 아닌데 왜 땅에 기와가 묻혀 있을까?’ 하고 생각하며 기와를 살펴보던 나는, 이것이 언젠가 국립고궁박물관에 갔을 때 전시되어 있던 조선 시대 청기와 색깔과 비슷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보니 할아버지 댁은 경복궁과 아주 가까웠다. ‘혹시 이게 조선 시대 청기와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불현듯이 떠올랐다.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그 기와를 집에 가져왔다.

내가 발견한 기와가 조선 시대 유물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우선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았다. 경복궁 내 여러 곳에서 청기와가 출토되었다는 신문 기사가 나왔다. 신문 기사에서 나온 기와의 색은 내가 발견한 것과 거의 똑같아 보였다. 당장 도서관으로 달려가 관련 책을 찾아보았다. <세종실록>에 ‘청와(靑瓦)’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고, <문종실록>에는 근정전과 사정전에 청기와를 덮었다는 기록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광해군 대를 마지막으로 <조선왕조실록>에서 더 이상 청기와를 제작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㉕ 자료를 찾아볼수록 내가 발견한 것이 조선 시대 청기와라는 믿음이 강해졌다. 오랜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낡은 청기와가 경복궁 근처에서 발견되었으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 기와는 유물일 가능성이 컸다. 기와를 본 주변 친구들과 하나 같이 옛날 경복궁 청기와가 맞는 것 같다며 놀라워했다. 할아버지 댁 마당을 조사해 보면 다른 유물들이 더 발굴될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친구도 있었다.

진짜 유물이라는 확신이 든 나는 전문가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전문가를 통해 기와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었고, 어디에 기증하면 좋을지 조언을 얻고 싶어서였다. 나는 문화유산 분야의 전문가로 유명한 한 대학교수님께 찾아뵈어도 되는지 전자 우편으로 여쭙었다. 다행히 와도 좋다는 답장을 받았다. 답장을 받자마자 바로 찾아가 뵈고 기와를 보여 드렸다. 부푼 기대감으로 가슴이 떨렸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교수님께서서는 기와를 보시고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말씀하셨다.

“이건 페인트칠을 한 요즘 기와란다. 조선 시대 기와는 이렇게 매끄럽지 않아. 아마 근래에 다른 건물 공사 때 쓰인 기와가 아닐까 싶구나.”

나는 민망하여 얼굴이 빨개졌다. 아름다워 보였던 기와의 빛깔이 순간 바랜 것처럼 느껴졌다. 그동안 기대감에 들떠 있었던 내 마음도 이성을 찾아 차분해졌다.

믿는 대로 보인다고 한다. 조선 시대 청기와였으면 하는 마음에 선불리 그렇게 단정 지었고, 다른 가능성을 제외하자 조사한 내용 모두가 다 그럴듯하게 여겨졌다. 어떤 일에 확신을 가지려면 충분히 조사한 다음 신중하게 판단해야 했는데, 들뜬 나머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성급하게 판단해 버린 것이다.

크게 실망한 나는 기와를 버릴까도 생각했지만, 결국 그것

을 집으로 가져왔다. 곰곰이 생각하니 이 기와 덕분에 얻은 것이 많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청기와에 대해 깊이 공부할 수 있었고, 또 삶의 교훈도 얻을 수 있었다. 지금 내 방 한쪽에 놓여 있는 저것이, 비록 경복궁의 기와는 아니지만 내게는 소중한 보물 1호이다.

나비의 꿈 : 영훈 님의 글과 사진 덕분에 청기와에 관해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글에 반전이 있어서 재미도 있었고요. 그런데 광해군 대 이후로 <조선왕조실록>에 청기와가 제작되었다는 기록이 왜 없는 걸까요? 혹시 아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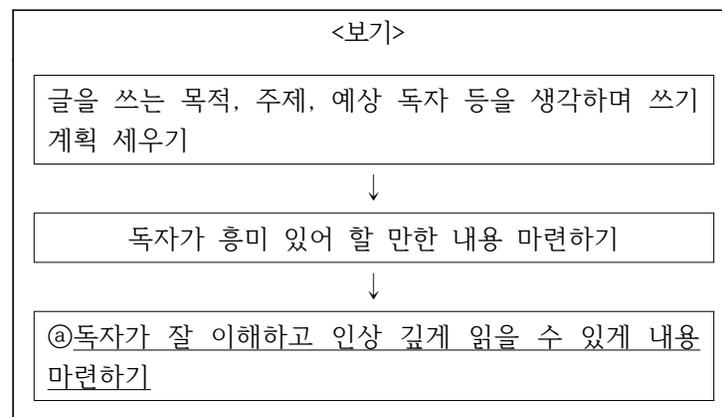
↳ 영훈이 : 제가 찾아본 자료에 따르면 청기와를 만드는데 비용과 인력이 많이 들었고, 청기와를 만드는 주원료인 염초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료에서는 이러한 점들이 영향을 미쳐 청기와가 더 이상 제작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너나들이 : 믿는 대로 보인다는 말 정말 공감해요. 저도 평소에 믿고 싶은 대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저 자신을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어요.

↳ 영훈이 : 맞아요. 저도 그래요. 이번 일을 통해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제 글이 너나들이 님에게 좋은 계기가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명일여자고등학교 (서울)

4. <보기>와 같은 과정을 통해 영훈이가 뒷글을 썼다고 할 때, ㉔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솔직하게 드러냈다.
- ② ‘경험-깨달음’의 구조로 내용을 조직하였다.
- ③ 전문가의 말을 직접 인용하여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였다.
- ④ 다양한 자료에서 조사한 내용을 활용하여 신뢰성을 높였다.
- ⑤ 역순행적인 구성 방법을 활용하여 독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었다.

명일여자고등학교 (서울)

5. ㉕과 같이 생각하게 된 근거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경복궁에서 청기와가 출토되었다는 신문 기사
- ② 문화유산 분야의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은 경험

- ③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조선 시대 청기와를 본 경험
- ④ 인터넷의 신문 기사에서 본 조선 시대 청기와 사진
- ⑤ 책에서 찾은 조선시대 청기와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

명일여자고등학교 (서울)

6. 다음 중 윗글과 유사한 상황이 형상화된 것은?

- ① 벽사창 밖이 어른어른커날 임만 여겨 나가 보니
 임은 아니 오고 명월(明月)이 만정(滿廷)한디 벽오동 젖은
 앞에 봉황이 내려와 짓 다듬난 그림자로다
 모쳐라 밤일식망정 남 웃길 변하괘라.
 - 작자 미상
- ② 추강(秋江)에 밤이 드니 물결이 차노매라.
 낚시 드리치니 고기 아니 무노매라.
 무심한 달빛만 싣고 빈배 저어 오노라.
 - 월산대군
- ③ 연못에 비 뿌리고 버드나무에 안개 끼었는데
 사공은 어디 가고 빈 배만 매어 있는고
 석양에 짝 잃은 갈매기는 오락가락하는구나
 - 조현
- ④ 아버지 살아실 제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 정철
- ⑤ 노래 삼긴 사람 시름도 하도 할샤,
 닐러 다 못 닐러 불러나 푸뚝단가
 진실로 풀릴 거시면은 나도 불러 보리라.
 - 신희

명일여자고등학교 (서울)

7. 다음은 윗글을 학습하며 그 내용을 성찰하고 정리한 영훈이의 노트이다. 괄호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말을 2음절로 쓰시오.

- 영훈이와 독자가 댓글을 통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며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군.
- 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영훈이는 예상 독자와 ()하며 내용을 마련했겠군.
- 쓰기는 의미를 구성하여 ()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이라 할 수 있겠군.

③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오랜만에 할아버지 댁을 방문한 어느 주말이었다. 마당에 나무를 심고 계시는 할아버지를 도와 드리다가 땅속에 묻혀 있는 돌 조각을 발견했다. 꺼내 보니 내 손바닥만 한 크기의 기와였다. ‘할아버지 댁은 기와집도 아닌데 왜 땅에 기와가 묻혀 있을까?’ 하고 생각하며 기와를 살펴보던 나는, 이것이 언젠가 국립고궁박물관에 갔을 때 전시되어 있던 조선 시대 청기와 색깔과 비슷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보니 할아버지 댁은 경복궁과 아주 가까웠다. ‘혹시 이게 조선 시대 청기와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불현듯이 떠올랐다.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그 기와를 집에 가져왔다.

(나) 내가 발견한 기와가 조선 시대 유물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우선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았다. 경복궁 내 여러 곳에서 청기와가 출토되었다는 신문 기사가 나왔다. 신문 기사에서 나온 기와의 색은 내가 발견한 것과 거의 똑같아 보였다. 당장 도서관으로 달려가 관련 책을 찾아보았다. <세종실록>에 ‘청와(靑瓦)’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고, <문종실록>에는 근정전과 사정전에 청기와를 덮었다는 기록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광해군 대를 마지막으로 <조선왕조실록>에서 더 이상 청기와를 제작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다) 진짜 유물이라는 확신이 든 나는 전문가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전문가를 통해 기와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었고, 어디에 기증하면 좋을지 조언을 얻고 싶어서였다. 나는 문화유산 분야의 전문가로 유명한 한 대학교수님께 찾아뵈어도 되는지 전자 우편으로 여쭙었다. 다행히 와도 좋다는 답장을 받았다. 답장을 받자마자 바로 찾아가 뵈고 기와를 보여 드렸다. 부푼 기대감으로 가슴이 떨렸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교수님께서서는 기와를 보시고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말씀하셨다.

“이건 페인트칠을 한 요즘 기와란다. 조선 시대 기와는 이렇게 매끄럽지 않아. 아마 근래에 다른 건물 공사 때 쓰인 기와가 아닐까 싶구나.”

나는 민망하여 얼굴이 빨개졌다. 아름다워 보였던 기와의 빛깔이 순간 바랜 것처럼 느껴졌다. 그동안 기대감에 들떠 있었던 내 마음도 이성을 찾아 차분해졌다.

(라) 믿는 대로 보인다고 한다. 조선 시대 청기와였으면 하는 마음에 선불리 그렇게 단정 지었고, 다른 가능성을 제외하자 조사한 내용 모두가 다 그럴듯하게 여겨졌다. 어떤 일에 확신을 가지려면 충분히 조사한 다음 신중하게 판단해야 했는데, 들뜬 나머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성급하게 판단해 버린 것이다.

크게 실망한 나는 기와를 버릴까도 생각했지만, 결국 그것을 집으로 가져왔다. 곰곰이 생각하니 이 기와 덕분에 얻은 것이 많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청기와에 대해 깊이 공부할 수 있었고, 또 삶의 교훈도 얻을 수 있었다. 지금 내 방 한쪽에 놓여 있는 저것이, 비록 경복궁의 기와는 아니지만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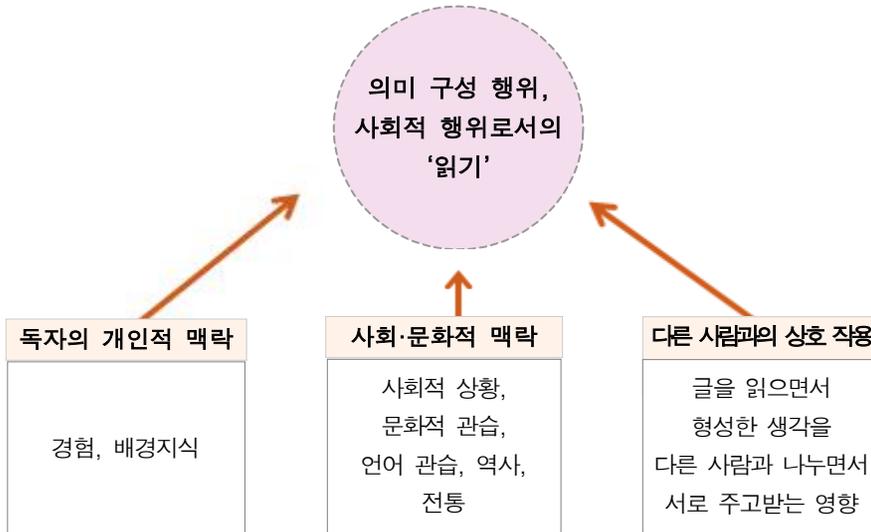
2-(1) 등나무 운동장 이야기

1] 사회적 상호 작용으로서의 '읽기'

① 개념: 글 읽기는 글쓴이와 독자는 물론, 글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상황, 관습, 전통, 역사 등이 서로 영향을 미치고

소통을 하면서 함께 의미를 구성하는 사회적 대화이자 사회적 상호 작용의 행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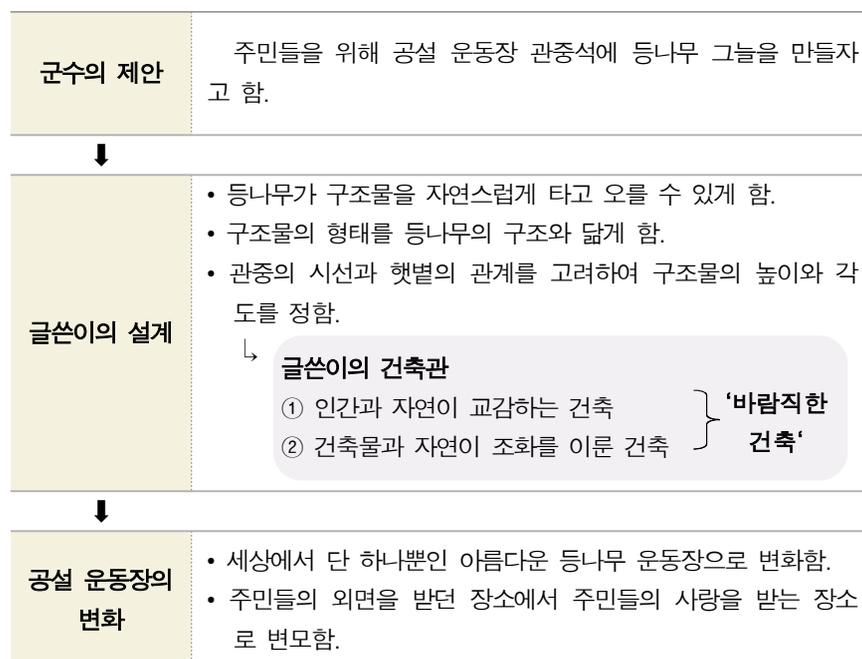
의미 구성에 작용하는 여러 가지 맥락 요소

② 특징: 상호 작용의 주체와 맥락에 따라 글의 의미는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음.

2] 제재 정리

갈래	수필	성격	비평적, 서사적, 체험적
제재	등나무 운동장(무주 공설 운동장)		
주제	감응을 통해 만들어진 '등나무 운동장'		
특징	① 등나무를 활용하여 공설 운동장에 그늘지붕을 만든 과정과 완공 이후에 생겨난 변화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서술함. ② 등나무 운동장을 만든 경험을 구체적 사례로 삼아 글쓴이의 건축관을 보여 줌.		

등나무 운동장의 조성 과정



2-(1) 등나무 운동장 이야기

■ 등나무 운동장 조성 과정에서 일어난 '감응'

감응	감응의 결과
군수가 주민들에게서 얻은 감응 (사람-사람 간의 감응)	주민들을 위해 운동장 관중석에 그늘을 만들려는 계획을 세움.
글쓴이가 등나무에서 얻은 감응 (사람-자연 간의 감응)	식물을 닦게 설계하여 등나무가 편안하게 타고 오를 수 있는 구조물을 만듦.
철골 구조물과 등나무 사이의 감응 (건축물-자연 간의 감응)	등나무의 성장하려는 힘과 그것을 떠받치는 철골 구조물의 힘이 서로 조화를 이룸.

■ 건축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

모더니즘 건축	비람직한 건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을 조경이라는 부수적인 측면에서 인공적으로 다룸.• 공간을 만드는 일을 중시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과 자연은 필연적 관계임.• 변화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함.

①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무주에는 공설 운동장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등나무 운동장'으로 다시 태어났다. 등나무 운동장을 만든 일은 내가 무주에서 10여 년 동안 한 일 중에서 가장 인상 깊고 감동적이며 필자를 많이 가르치기도 한 프로젝트다. 한마디로 말해, 모더니즘 건축이 놓친 자연과 인간의 '교감'과 '감성'을 내게 일깨워 준 작업이다. ㉡일반적으로 건축은 공간을 만드는 일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궁극적으로 시간을 다루는 일이라는 것도 다시 한 번 생각해 한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모더니즘 건축에서 우리가 놓쳤다고 하는 자연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가? 그 시작에서부터 건축은 자연과 필연적 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현대 건축은 자연을 본격적으로 대접하지 않고 '조경'이라고 하는 부수적인 측면에서 인공적으로 다루려고 했다. ㉢즉, 모더니즘 건축에서는 건축이 마치 자연 위에 균립하는 듯했다. 우리가 건축에서 자연에 관해 다시 생각해야 하는 것은 모든 건축이 - 설사 도심에 건설된다고 하더라도 - '자연'이라는 큰 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자연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간을 온전히 표현하는 여러가지 능력을 지니고 있다. 자연은 그 자체가 변화이자 축적이며 지속적이고 자라나는 것이다.

(나) 그러면 무주 ㉣공설 운동장이 ㉤등나무 운동장으로 변신하게 된 까닭은 무엇인가? 과연 공설 운동장에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1997년 어느 날, 나는 무주에 회의를 하러 갔다. 회의가 끝나고 점심을 먹던 중 갑자기 무주 군수가 "식사를 마치고 우리 같이 공설 운동장에 갑시다."라고 제안했다.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따라나선 나는 "거기 무슨 일이 있는지요?"라고 물었으나 그는 그냥 가 보면 안다는 식으로 가볍게 대답했다. 그의 말에 반신반의하며 따라가 본 운동장은 별다른 특색을 찾을 수 없이 평범했다.

지방 소도시의 조그만 공설 운동장이란 평소에는 한적하고 가끔 행사가 있을 때나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다. 다만, 무주의 공설 운동장은 초록 잔디를 정성스럽게 키워 넓게 펼쳐놓은 것과 주변의 자연 경관이 빼어나다는 점이 특별해 보였다. 그때 군수는 "보여 줄 게 있다."라며 그간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그는 공설 운동장에서 군내 행사가 있을 때마다 주민들을 초대하는데 주민들은 거의 오지 않고 공무원들만 참여하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다고 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공설 운동장에서 행사가 있을 때 왜 참석하지 않느냐고 질문을 했는데, 어느 어르신께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여보게 군수, 우리가 미쳤나! 군수만 본부석에서 햇볕을 피해 앉아 있고 우리는 땀병에서 있으라고 하는 게 대체 무슨 경우인가. 우리가 무슨 별받을 일 있나? 우린 안 가네."

아닌 게 아니라 햇볕이나 비를 피하는 가림막은 중앙 본부석에만 있고, 운동장 주변의 관중석은 따가운 햇볕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었다. 사실 우리나라의 어느 운동장이든 본부석은 일반 관중석보다 늘 거대하고 압도적이어서 권위와 중심을 상징하는 장소처럼 느껴진다.

군수는 모든 공설운동장에 있는 이 권위주의의 실상을 파악하고 이를 기꺼이 다른 모습으로 바꾸고자 남몰래 무언가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가 운동장에서 나에게 보여주겠다고 한 것은 바로 그가 운동장 주변에 심어놓은 240여 그루의 등나무였다. 그는 등나무를 심어서 관중석에 자연스러운 그늘을 만들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었다.

(다) 나는 대답했다. '그래 등나무들아, 내가 너희한테 집을 지어 주마. 그러면 너희는 근사한 그늘을 만들어 나오.' 그러면서 생각한 것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어떻게 하면 최대한 공사비를 줄일 수 있는가 하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어떠한 구조물이든지 식물이 초대되는 집이 아니라 '식물이 주인'이 되는 집이 되게끔 배려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다. 즉, 완공된 후 구조가 드러나기보다는 오히려 등나무들이 마음껏 자라나서 마치 구조물의 주인이 된 것처럼 보여 주고 싶었다. 이 두 요소를 모두 충족하는 방법은 식물을 닮게 설계하는 것이었다.

나는 서울에 돌아오자마자 바로 스케치를 하고 설계에 들어갔다. ㉦첫째도 둘째도 모두 식물과 같이 만들고자 했다. 등나무는 여러 줄기가 모여서 타고 오르는 식물이니 작은 것들이 합쳐지는 구조를 선택하기로 했다. 그래서 지름 6센티미터짜리 원형 파이프 네 개를 한 다발로 묶어 큰 줄기가 되게 하고, 그 원형 파이프를 때로는 두 개, 때로는 세 개를 결합해 작은 줄기가 되게 하여 등나무가 편안하게 타고 오를 수 있도록 가벼운 원호 모양의 구조물을 만들었다.

즉, 구조 자체를 등나무의 구조와 닮게 하려고 원형 파이프를 여러 개 결합하였고, 등나무가 관중석 방향으로 자랄 수 있도록 윗부분의 구조를 원호 형태로 만들었다. 시선과 햇볕의 관계를 고려해 가장 적절한 위치에 원호의 꼭짓점을 정했다. 특히 관중석 제일 뒷줄에 앉는 사람들의 시선에 장애가 없도록 하는 것은 원호의 꼭짓점을 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다. 또 등나무가 자라면 원호 형태의 파이프가 휘어질 것을 고려하여, 기둥의 위쪽에서 원호 형태의 파이프를 당기며 잡아 주도록 설계했다. 그리고 등나무가 구조물을 쉽게 타고 올라가도록 가는 쇠줄로 엮어 주었다.

구조물의 단면을 그리면서 모든 것은 명확해졌다. ㉧나는 최소의 것으로 최대의 일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상세한 내용을 모두 정하고 물량까지 계산하는 데 걸린 시간은 서너 시간 정도였는데, 나는 거의 무아지경에 빠져 즐겁게 집중할 수 있었다.

이런 일을 그렇게 순식간에 집중해서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감응이 겹으로 작동해서가 아닌가 싶다. 하나는 군수가 주민들에게서 얻은 감응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내가 허공을 허우적대는 등나무 순에서 얻은 감응이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감응하고, 사람과 식물이 서로 감응한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 비로소 등나무 운동장이 태어난 것이다.

(라) 공설 운동장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관중석 상부에 철골 구조물을 만드는 공사가 완공되고 1년이 지나면서 등나무 운동장은 서서히 무주 주민의 사랑을 받는 장소가 되었다.

2-(1) 등나무 운동장 이야기

등나무는 마치 집들이를 하듯 마음껏 잔치를 벌였고 그 잔치에 주민들을 초대했다. 관중석 바닥에는 조명도 설치되어 밤이 되면 등나무들이 은은하게 변신을 한다. 그리고 본부석의 콘크리트 지붕을 부드러운 막 구조물로 바꾸었고, 거기에 대형 화면을 설치했다.

매년 꽃이 피는 봄이 오면 등나무 운동장은 환상적으로 변한다. 언젠가 주민들은 이 운동장에서 영화도 감상했다. 그리고 행사나 경기가 없을 때 여기저기서 온 방문객들은 등나무 운동장의 커다란 규모와 아름다운 풍경에 압도되어 감동한다. 거기에는 결과적으로 자연의 힘이 크게 작동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절제된 건축의 힘도 작용했다. 운동장의 등나무는 철 구조와 서로 만나서 또 다른 구조체를 만들어 냈다. 등나무가 자연스럽게 자라려는 힘과 의지를 철 구조가 떠받쳐 주고 있다. 등나무의 성장하려는 힘과 그것을 떠받치는 철골의 힘은 마치 상대방의 힘을 알아차린다는 듯 서로 감응하고 있다.

이곳을 찾는 방문객에게 관중석 제일 뒷줄에 올라서서 한쪽 끝에서 한쪽 끝까지 걷기를 권유한다. 거기에서는 우리가 도심에서는 체험할 수 없는 자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자연은 올해에도 어김없이 스스로 늘 그러한 풍경을 보여 줄 것이고, 내년에도 그러할 것이다. / 서울에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있고 무주에는 등나무 운동장이 있다.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등나무 운동장이.

-정기용, <등나무 이야기>

명일여자고등학교 (서울)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현대 건축과 모더니즘 건축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글쓴이의 건축관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묻고 답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이어질 내용에 대한 독자의 관심을 환기하고 있다.
- ③ 등나무 운동장을 건설하는 과정과 완공 이후의 변화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였다.
- ④ 등나무 운동장을 만든 경험을 구체적인 사례로 삼아 글쓴이의 건축관을 보여주고 있다.
- ⑤ 대화 장면을 직접 인용함으로써 서술 양상에 변화를 주고 있다.

명일여자고등학교 (서울)

2. 윗글을 읽는 과정에서 ㉠~㉣과 관련하여 독자가 떠올린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이전과 다른 모습을 지녔다는 것이니까 뭔가 근본적으로 달라진 변화가 있었다고 예측할 수 있겠군.
- ② ㉡ - 일반적으로 공간이라는 요소와 관련되는 건축을 '시간을 다루는 일'이라고 한 것은 세월이 흐르면서 남아가는 건축물의 속성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군.

- ③ ㉢ - 모더니즘 건축이 기능성이나 실용성에 치우쳐 건축물과 필연적인 관계인 자연이라는 요소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부수적인 요소로만 취급하려 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군.
- ④ ㉣ - 완공 후 구조물이 주인 행세를 하게 하기보다는 등나무가 구조물의 주인인 것처럼 드러나게 하기 위해 내린 결론이라고 할 수 있군.
- ⑤ ㉤ - 식물을 닮게 설계를 함으로써 비용 문제뿐만 아니라 군수의 고민도 해결하고, 등나무가 잘 드러나면서도 관중들을 배려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느낄 수 있어.

명일여자고등학교 (서울)

3. 글의 주제 의식을 고려할 때, ㉠와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주인이 주인이 되는 건물이라면 ㉡는 식물이 주인이 되는 건물이다.
- ② ㉠은 자연이 부수적인 역할을 하는 건축물이라면 ㉡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이다.
- ③ ㉠이 군수가 문제시하는 건축물이라면 ㉡는 주민들이 문제시하는 건축물이다.
- ④ ㉠은 화려하고 장엄한 건축물이라면 ㉡는 소박하면서도 아름다운 건축물이다.
- ⑤ ㉠에는 권위주의적인 요소가 남아있는 건축물이라면, ㉡는 실용주의적 요소가 중시된 건축물이다.

명일여자고등학교 (서울)

4. <보기>를 읽고 (1), (2)번의 물음에 대한 답을 쓰시오.

<보기>

등나무 운동장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세 개의 감응이 작용하였다. 사람과 사람의 감응, ㉠사람과 자연의 감응, (㉡)이다.

(1) ㉠의 구체적인 의미를 쓰시오.('누가 무엇에서 받은 감응'이라는 형태로 쓸 것)

(2) ㉡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모더니즘 건축에서 우리가 놓쳤다고 하는 자연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가? 그 시작에서부터 건축은 자연과 필연적 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현대 건축은 자연을 본격적으로 대접하지 않고 '조경'이라고 하는 부수적인 측면에서 인공적으로 다루려고 했다. 즉, 모더니즘 건축에서는 건축이 마치 자연 위에 군림하는 듯했다. 우리가 건축에서 자연에 관해 다시 생각해야 하는 것은 모든 건축이 - 설사 도심에 건설된다고 하더라도 - '자연'이라는 큰 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자연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간을 온전히 표현하는 여러 가지 능력을 지니고 있다. 자연은 그 자체가 변화이자 축적이며 지속적이고 자라나는 것이다.

(나) 햇볕이나 비를 피하는 가림막은 중앙 본부석에만 있고, 운동장 주변의 관중석은 따가운 햇볕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었다. 사실 우리나라의 어느 운동장이든 본부석은 일반 관중석보다 늘 거대하고 압도적이어서 권위와 중심을 상징하는 장소처럼 느껴진다. 군수는 모든 공설운동장에 있는 이 권위주의의 실상을 파악하고 이를 기꺼이 다른 모습으로 바꾸고자 남몰래 무언가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가 운동장에서 나에게 보여주겠다고 한 것은 바로 그가 운동장 주변에 심어놓은 240여 그루의 등나무였다. 그는 등나무를 심어서 관중석에 자연스러운 그늘을 만들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었다.

(다) 나는 그의 아이디어가 굉장히 놀라웠고, 허공에서 허우적대는 등나무의 순을 보고는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허공에서 허우적거리는 수백 그루의 등나무 줄기는 마치 살려 달라고 애절하게 호소하는 것 같았다. 나는 대답했다. '그래 등나무들아, 내가 너희한테 집을 지어 주마. 그러면 너희는 근사한 그늘을 만들어 다오.' 그러면서 생각한 것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어떻게 하면 최대한 공사비를 줄일 수 있는가 하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어떠한 구조물이든지 식물이 초대되는 집이 아니라 '식물이 주인'이 되는 집이 되게끔 배려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다. 즉, 완공된 후 구조가 드러나기보다는 오히려 등나무들이 마음껏 자라나서 마치 구조물의 주인이 된 것처럼 보여 주고 싶었다. 이 두 요소를 모두 충족하는 방법은 식물을 닦게 설계하는 것이었다.

(라) 이런 일을 그렇게 순식간에 집중해서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감응이 겹으로 작동해서가 아닌가 싶다. 하나는 군수가 주민들에게서 얻은 감응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내가 허공을 허우적대는 등나무 순에서 얻은 감응이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감응하고, 사람과 식물이 서로 감응한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 비로소 등나무 운동장이 태어난 것이다. 허공을 허우적대는 등나무가 관중석 쪽으로 손을 내밀고 있는 모습이 지금도 눈에 생생하다. 나무가 몸을 뻗어 세상을 향해 자라나는 것을 보는 일은 언제나 행복하다.

(마) 방문객들은 등나무 운동장의 커다란 규모와 아름다운 풍경에 압도되어 감동한다. 거기에는 결과적으로 자연의 힘이

크게 작동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절제된 건축의 힘도 작용했다. 운동장의 등나무는 철 구조와 서로 만나서 또 다른 구조체를 만들어 냈다. 등나무가 자연스럽게 자라려는 힘과 의지를 철 구조가 떠받쳐 주고 있다. 등나무의 성장하려는 힘과 그것을 떠받치는 철골의 힘은 마치 상대방의 힘을 알아차린다는 듯 서로 감응하고 있다.

성남외국어고등학교 (경기)

5.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글쓴이의 가치관을 드러낸다.
- ② 형상화된 삶을 현재화하여 표현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생동감을 준다.
- ③ 자기 반성적이고 성찰적인 주제를 제시하여 독자들의 심미적 체험을 최대화한다.
- ④ 글쓴이의 글의 중심 소재에 대해 객관적인 거리를 두고 관조적으로 바라본다.
- ⑤ 문학의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글이므로 비유적 표현을 지양하고 정보를 충실히 표현한다.

성남외국어고등학교 (경기)

6. (가) ~ (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 : 현대 건축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 ② (나) : 대상에 대한 통념을 제시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반박했다.
- ③ (다) : 글쓴이가 생각한 설계의 중요한 요소를 드러냈다.
- ④ (라) : 건축물과 자연 사이의 감응에 대해 표현했다.
- ⑤ (마) : 설계에 있어 자연을 건축의 우위에 두어야 함을 강조했다.

성남외국어고등학교 (경기)

7. 윗글을 읽고 학생들이 나눈 대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건축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의 일부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
- ② 모더니즘 건축과 현대 건축은 자연을 부수적인 것으로 파악했구나.
- ③ 자연은 생명체처럼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기 때문에 시간을 표현할 수 있는 거야.
- ④ 글쓴이는 주민들과 등나무 양측에 모두 감응했기 때문에 훌륭한 건축물을 설계할 수 있었어.
- ⑤ 군수가 운동장에 심어놓은 등나무는 건축물과 만났기에 더욱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낼 수 있었어..

2-(2) 허생전

① 문학 작품의 해석과 평가

- ① 해석과 평가의 다양성: 독자의 경험과 지식, 가치관, 독서 목적 등에 따라 작품을 읽는 관점이 달라짐.
→ 독자의 관점에 따라 작품이 다양하게 해석·평가됨.
- ② 해석과 평가의 타당성: 해석과 평가가 타당성을 지니려면 적절한 근거를 갖추어야 함.

② 문학 작품의 '주체적 수용'의 의미

다른 사람의 해석이나 평가를 무비판적으로 따르지 않고, 타당한 근거를 들어 자신의 관점에서 작품의 의미를 해석하고 평가함.



작품에서 풍부한 의미를 이끌어 낼 수 있고,
비평적 안목을 기함으로써 문학 작품을 능동적으로 향유할 수 있음.

③ 제재 정리

갈래	고전 소설, 한문 단편 소설	성격	비판적, 풍자적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 조선 효종 때(17세기 중반) • 공간: 국내(서울, 안성, 제주, 변산반도 등), 국외(빈섬, 장기도) 		
제재	'허생'이라는 선비의 비범한 재주와 기이(奇異)한 행적		
주제	사대부의 무능과 허위의식 비판, 새로운 삶의 각성과 실천 촉구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비범한 식견과 능력을 지닌 '허생'이라는 인물의 행적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됨. ② 실학사상을 바탕으로 당대 조선 사회의 폐단을 비판함. ③ '빈 섬'이라는 새로운 공간을 통해 이상향을 모습을 그려 보임. 		

■ <허생전>의 구성

발단	책 읽기만 즐겨 하던 가난한 선비 허생이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아내의 질책을 듣고 집을 나섬.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부자 변 씨에게 빌린 만 냥으로 과일과 말총을 사재기하여 큰돈을 벌. ② 도적 떼를 데리고 빈 섬으로 들어가 이상국 건설을 시험함. ③ 섬을 떠나 나라 안의 가난한 사람을 두루 구제하고, 변 씨와 교분을 맺음.
위기	변 씨가 소개한 이완 대장을 만나 허생이 부국강병을 위한 시사 삼책을 제시하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절정	이완 대장을 크게 질책하면서 사대부들의 허위의식을 비판함.
결말	허생이 종적을 감춤.

■ <허생전>의 주요 특징

-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熱河日記)》 권10의 <옥갑야화>에 실려 있는 한문 단편 소설로 당대 사회의 경제적·사회적 문제와 지배 계층인 사대부의 무능과 허위의식을 비판함.
- 비범한 식견과 능력을 지닌 '허생'이라는 인물을 내세우고, '허생'의 행적을 따라 이야기를 순차적으로 전개하며 작가의 비판 의식을 드러냄.
- 사건이 뚜렷하게 해결되지 않은 채 허생이 종적을 감추는 '개방적인 결말 구조'는 암시와 여운을 남겨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허생의 이인(異人)다운 풍모를 부각함.

■ '허생'의 행적에 나타난 작가의 비판 의식

'허생'의 행적	작가의 의식
과일과 말총을 사재기하여 큰돈을 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 사회의 취약한 경제 구조 비판 • 양반 계층의 허례허식 비판
도적 떼를 데리고 빈 섬으로 들어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배층의 무능과 부도덕 비판 • 이용후생(利用厚生)의 정책 부재 비판
이완 대장에게 시사 삼책을 제안했으나 거절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재 등용의 문제점 비판 • 북벌론의 허구성 비판 • 집권층의 무능과 허례허식 비판

반영

■ <허생전>의 '빈 섬'

- 가족을 바탕으로 한 풍요로운 농경 사회
- 백성들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허생의 포부를 시험해 보기 위한 곳
- 도적이 된 가난한 양민들을 데리고 들어가 풍요로운 공동체를 새롭게 건설한 곳
-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구분 없는 공동체

①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허생은 평소에 알고 지내는 사람도 없고 해서, 곧바로 운 중가로 나아가 시장 사람들에게 물었다.

“한양에서 누가 가장 부자입니까?”

변 씨라고 말해 주는 사람이 있어서, 허생은 드디어 그 집을 찾아갔다. 허생은 변 씨를 만나 길게 읊을 하고는,

“내가 집이 가난하여 조그마한 것을 시험해 보려는 것이 있으니, 그대에게 돈 만 금을 빌릴까 하오.”

하니 변 씨는 “그러시오.”하고는 그 자리에서 만 금을 내주었다. 허생은 끝내 고맙다는 인사도 하지 않고 나가 버렸다.

변 씨 집의 자제들과 와 있던 손님들이 허생의 물골을 보니, 이견 영락없는 비렁뱅이였다. 허리를 두른 실띠는 술이 빠졌고, 갓신의 뒤축은 자빠졌으며, 갓은 찌그러지고 도포는 그을려 행색이 궤죄죄한데다가, 코에서는 맑은 콧물이 줄줄 흘렀다. 허생이 가고 나자 모두들 대경실색하여 물었다. <중략>

한편 만 금을 빌린 허생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길로 바로 경기도 안성으로 내려가 거기에 머물러 거처를 마련하였다. 안성 지방이 경기도와 충청도의 경계이고, 삼남 지방의 길목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거기서 대추, 밤, 감, 배, 석류, 굴, 유자 등의 과일들을 모두 시세의 곱절 가격으로 모조리 사들였다.

허생이 과일을 사재기하는 바람에 나라 안에서는 연희를 열거나 제사를 지낼 수 없었다. 얼마 지나자 허생에게 곱절의 가격으로 팔았던 장사치들이 도리어 열 배의 가격으로 되사 가게 되었다. 허생이 한숨을 쉬며 탄식하였다.

[A]“겨우 만 금으로 한 나라를 휘청하게 만들었으니, 나라의 경제 규모를 짐작할 만하다.”

허생은 다시 칼, 호미, 베, 명주, 솜을 사 가지고 제주도로 들어가서 그곳의 말총을 다 거두어들였다.

“몇 해가 지나면 나라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지 못할 것이다.”

과연 얼마 있다가 망건 값이 열 배로 치솟았다.

허생이 높은 뱃사공을 찾아서 물었다.

“바다 밖에 사람이 살 만한 ㉠빈 섬이 있던가?”

“있습지요. 언젠가 태풍에 표류하여 곧장 서쪽으로 사흘을 가서 한밤중에 어떤 빈 섬에 닿았습니다. 따져 보니까 중국의 사문과 일본의 장기도의 중간쯤 될 겁니다. 꽃나무가 절로 피며, 과일이 절로 익어 있고, 사슴들이 떼를 지어 다니고, 물고기는 사람을 봐도 놀라질 않았습지요.”

허생이 크게 기뻐하며,

“자네가 나를 그곳으로 데려다준다면 부귀를 함께 누리게 해 줘세.”

하니 사공이 그 말을 따르기로 하였다.

드디어 바람을 타고 동남 방향으로 가서 섬에 들어가게 되었다. 허생은 섬의 높은 곳에 올라서 사방을 둘러보고는 그만

실망하여 탄식하였다.

“땅이 고작 천 리가 못 되니, 무슨 큰일을 할 수 있겠는가? 땅은 기름지고 샘물은 달콤하여 그저 돈 많은 늙은이는 될 수 있겠구먼.” <중략>

그때 전라도 변산반도에는 도적 떼 수천이 우글거리고 있었다. 그 지방의 고을과 군에서 군졸을 풀어서 체포하려고 했으나 잡을 수가 없었다. 도적 떼도 감히 나돌아 다니며 노략질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서 바야흐로 굶주림에 허덕였다. 허생이 도적의 소굴로 들어가서 괴수를 달랬다. <중략>

도적들이 코웃음을 쳤다.

“아니, 밭 있고 아내가 있다면 무엇 때문에 괴롭게 도적이 든단 말이요?”

“자네들이 그렇게 잘 안다면 어째서 장가를 들어 살림을 장만하고, 소를 사서 밭을 갈 생각은 하지 않는 겐가? 그리 되면 살아서 도적놈이란 이름도 없을 것이고, 집에 살면서 부부의 즐거움도 있을 것이며, 나돌아 다녀도 관에 붙잡힐 염려가 없을 것이고, 길이길이 의식의 풍요함을 누릴 수 있지 않겠는가?”

“어찌 그런 생활을 원하지 않겠소이까? 다만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을 뿐이죠.”

허생이 웃으며 말했다.

“자네들이 명색 도적질을 하는 도둑놈이런만 어찌 돈 없다는 걱정을 다 하누? 내가 자네들을 위해 돈을 마련해 줄 것이네. 내일 바닷가를 바라보게나. 바람에 붉은 깃발이 펄럭이는 배가 모두 돈을 실은 배일 터이니, 어디 자네들 마음껏 한번 가져가 보게.”

허생이 도적들과 약조를 하고 떠나자, 도적들이 모두 ‘미친 놈’이라고 비웃었다. <중략>

한편 섬으로 들어간 허생과 도적들은 나무를 찍어서 집을 짓고, 대나무를 엮어서 울타리를 만들었다. 땅기운이 온전하다 보니 온갖 곡식이 심는 대로 크고 무성하게 자라고, 김을 매고 쟁기질을 하지 않아도 한 줄기에 아홉 이삭이 달렸다. 삼 년 먹을 식량을 비축해 두고 나머지는 모두 배에 싣고 장기도로 가서 팔았다. 장기도는 일본에 속한 고을로, 삼십일만 호가 되는 큰 지방인데 바야흐로 큰 기근이 들어 있었다. 그리하여 굶주린 사람들을 진휼하고 은 백만 냥을 얻게 되었다.

허생이 탄식하면서,

“이제야 나의 조그마한 시험을 마치게 되었구나.”

하고는 남녀 이천 명을 모두 모아 놓고 명을 내렸다.

“내가 처음 너희들과 이 섬에 들어올 때의 계획으로는 먼저 너희들을 풍부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따로 문자를 만들고, 의관제도를 새로이 제정하려고 하였느니라. 그런데 여기 땅이 좁고 내 덕이 얇으니, 나는 이제 여기를 떠나려나. 아이들이 태어나 손가락을 잡게 되면 오른손으로 잡도록 가르치고, 하루라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 먼저 먹도록 양보하게 하라.”

그러고는 다른 배를 모두 불살라 버리고,

“나가는 사람이 없으면 들어오는 사람도 없을 테지.”

하고 은자 오십만 냥을 바닷속에 던지며,

“바다가 마르면 얻는 사람이 생기겠지. 백만 냥이나 되는 돈은 나라 안에서는 놓아둘 곳이 없거늘, 하물며 이 작은 섬에서야.”

했다. 글을 아는 사람은 모두 배에 실어서 함께 섬을 빠져 나오며,

“이 섬에 화근을 없애려 함이네.” 라고 하였다.

물으로 나온 허생은 나라 안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난하고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을 구제하였다. 돈을 그렇게 써도 아직 은자 십만 냥이 남았다. <중략>

허생이 웃으며 말했다.

“재물을 가지고 얼굴이 번드르르해지는 일이야, 당신 같은 장사치들의 일일 뿐이오. 만 금이란 돈이 어찌 사람의 도(道)를 살찌우기야 하겠소?”

이에 은 십만 냥을 변 씨에게 주며,

“내가 순간의 굶주림을 참지 못하여 책 읽기를 마저 끝내지 못하고, 그대에게 만 금을 빌렸던 것이 부끄럽소이다.”

하니 변 씨는 깜짝 놀라서 일어나 절을 하고 십만 냥을 다 받을 수 없다고 사양하며, 십분의 일만 이자로 쳐서 받겠다고 하였다. 허생이 버럭 화를 내며,

“당신은 어째서 나를 장사꾼으로 취급하려는 게요?”

하고는 옷자락을 뿌리치고는 획 가 버렸다. <중략>

변 씨는 그제야 그의 성씨가 허씨라는 것을 알고 탄식하며 돌아갔다.

이튿날 변 씨는 허생에게 받은 은자를 모두 가지고 가서 그에게 돌려주었다. 허생은 사양하였다.

“내가 부자가 되려고 했다면 백만 금을 버리고 이까짓 십만 금을 취하려고 하겠소? 내가 지금부터는 그대의 도움을 받아 가며 살아갈 터이니, 그대가 나를 자주 들여다보고 먹는 입을 따져서 양식을 보내 주고, 몸을 헤아려 옷감이나 보내 주구려. 한 평생 그렇게 살아간다면 충분할 것이니, 어찌 재물로 정신을 괴롭히고 싶겠소이까?”

변 씨가 백방으로 허생을 달래 보았지만 끝내 어찌할 수가 없었다. 변 씨는 그때부터 허생의 양식과 옷가지가 떨어질 만한 때를 헤아렸다가 자신이 직접 찾아가서 가져다주었다. 그러면 허생도 흔연히 받아들였고, 만약 조금이라도 많이 가져오면 언짢아하면서,

“그대는 어째서 내게 재앙을 안겨 주려는 것이요?” 하였다. <중략>

밤중에 이 대장은 아랫사람을 물리치고 변 씨와 둘이 걸어서 허생의 집에 당도했다. 변 씨는 이 공을 문밖에서 기다리게 하고, 혼자 먼저 들어가서 허생을 만나 보고 이곳에 찾아온 연유를 이야기했다. 허생은 짐짓 못 들은 척하며,

“그만, 자네가 차고 온 술병이나 이리 풀어 놓으시게.”

하고는 서로 즐겁게 마셨다. 변 씨는 이공을 밖에서 기다리

게 해 놓은 것이 민망하여 여러 차례 말을 꺼내 보았으나, 허생은 대꾸도 하지 않았다. 밤이 깊어지자 허생이 말했다.

“손님을 불러도 되겠소.”

이 대장이 방에 들어왔으나, 허생은 편안하게 앉아서 일어나지도 않았다. 이 대장은 몸 둘 바를 모르고 엉거주춤하다가 겨우 나라에서 어진 인재를 구하려는 뜻을 설명하였다. 허생이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밤은 짧은데 말이 너무 길어서 듣기에 아주 지루하구먼. 그래, 너는 지금 무슨 벼슬을 하느냐?”

“어영청 대장입니다.”

“그렇다면 너는 바로 나라에서 신임받는 신하가 아니더냐. 내가 응당 재야에 숨어 있는 와룡 선생을 천거할 터이니, 네가 임금께 아뢰어 그에게 삼고초려(三顧草廬)할 수 있게 하겠는가?”

이 대장은 머리를 숙여 골똘히 생각하더니 한참 만에 대답했다.

“어렵겠습니다. 그다음의 것을 듣고자 합니다.”

“나는 ‘그 다음’이란 말은 아직 배우지 못했도다.”

“명나라 장군과 병사들은 조선이 예전에 입은 은혜가 있다고 여겨서 그 자손들이 되놈의 나라에서 몸을 빼어 우리나라로 많이 건너왔으나, 이리저리 떠돌며 홀몸으로 외롭게 지내고 있는 이가 많다. 네가 임금께 아뢰어 종실의 여자들을 뽑아서 두루 시집을 보내고, 훈척과 권귀들의 집을 몰수하여 그들의 살림집으로 내어줄 수 있겠느냐?”

이 대장이 고개를 숙이고 한참 있다가 대답하였다.

“그것도 어렵겠습니다.”

“아니 이것도 어렵다, 저것도 어렵다 한다면 대관절 무슨 일이 가능하겠느냐? 아주 쉬운 일이 있으니, 네가 능히 할 수 있겠느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저 천하의 대의를 외치려면 먼저 천하의 호걸들과 사귀어 결탁하지 않고는 되지 않는 법이고, 남의 나라를 정벌하려면 먼저 첩자를 쓰지 않으면 성공을 거둘 수 없는 법이다. 지금 만주족이 갑자기 천하의 주인이 되었으나, 아직 중국을 완전히 손아귀에 넣어 친하게 지내지 못하는 형편이니, 이때 조선이 다른 나라보다 먼저 출선해서 복종한다면 저들에게 신뢰를 받을 것이다. 만약 당나라, 원나라 때의 예전 일처럼 우리 자제들을 청나라에 파견하여 학교에 입학하고 벼슬도 할 수 있게 하고, 장사치들의 출입도 금하지 말도록 저들에게 간청한다면, 저들도 자기네에게 친근하고자 하는 우리를 보고 반드시 기뻐하여 이를 허락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나라의 자제들을 엄선하여 머리를 깎여 변발을 하게하고 오랑개 복장을 입히고 선비들은 빈공과에 응시하고, 일반 사람들은 멀리 강남까지 장사를 하게 만들어서 그들의 허실을 엿보고 한쪽의 호걸들과 결탁한다면, 천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나라의 치욕도 씻을 수 있을 것이다. <중략>

이 대장이 낙심하고 허탈해서 말했다.

“사대부들이 모두 예법을 삼가 지키고 있거늘, 누가 기꺼이 머리를 깎고 오랑캐 옷을 입으려고 하겠습니까?”

<중략>

허생이 대갈일성하며,

“도대체 사대부라는 게 뭐하는 것들이냐. 오랑캐 땅에서 태어난 주제에 자칭 사대부라고 뽐내고 앉았으니, 이렇게 어리석은 데가 있느냐? 입는 옷이란 모두 흰 옷이니 이는 상복이고, 머리는 송곳처럼 뾰족하게 묶었으니 이는 남쪽 오랑캐의 방망이 상투이거늘, 무슨 놈의 예법이란 말인가? 지금 명나라를 위해서 복수를 하려고 하면서도 그까짓 상투 하나를 아까워한단 말이냐. 장차 말을 달려 칼로 치고 창으로 찌르며, 활을 당기고 돌을 던져야 하는 판에 그 따위 너풀거리는 소매를 바꾸지 않고서, 그걸 자기 판에 예법이라고 한단 말이냐?

내가 처음에 너에게 세 가지 계책을 일러 주었거늘, 도대체 너는 한 가지도 가능한 일이 없다고 하니, 그러면서도 신임을 받는 신하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래, 신임 받는 신하라는 게 고작 이런 것이냐. 이런 자는 목을 잘라야 옳을 것이니라.” <중략>

이튿날 다시 찾아갔더니 집은 이미 텅 비어 있고, 허생은 간 곳이 없었다.

-박지원, <허생전>

김해분성고등학교 (경남)

1. [A]에 나타난 허생의 심리를 추측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조선 사회의 취약한 경제 구조를 비판하고 있다.
- ② 한 나라의 경제를 좌우한 자신의 능력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 ③ 지식이 부족해 돈을 벌지 못하는 장사치들을 얕잡아 보고 있다.
- ④ 농산물이 잘 자라지 않아 값이 오른 경제적 상황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 ⑤ 사농공상(士農工商)의 계급의식이 반영되고 공리공론(空理空論)만 일삼는 사대부를 비판하고 있다.

김해분성고등학교 (경남)

2. ㉠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을 모두 고르면?

<보기>

- ㉠ 허생은 섬의 규모가 작아 아쉬워한다.
- ㉡ 상업을 중시하여 외국과 교역을 하였다.
- ㉢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구분이 없는 곳이다.
- ㉣ 가족을 바탕으로 한 풍요로운 농경 사회이다.
- ㉤ 문자를 만들고 의관 제도를 새로이 제정하였다.
- ㉦ 조선 사회의 골칫거리였던 도적을 격리하기 위한 곳이다.
- ㉧ 현실에서 도피해 새로운 영토를 정복하고자 한 허생의 목적을 실현하는 곳이다.
- ㉨ 백성들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허생의 포부를 시험해 보기 위한 곳이다.

- ① 2개 ② 3개 ③ 4개
- ④ 5개 ⑤ 6개

김해분성고등학교 (경남)

3. <보기>의 '선생님'의 입장에서 허생을 비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선생님은 은체가 서 있는 걸 그대로 둔 채 천천히 말씀하셨다.

“허생이 졌다는 말은, 허생의 행동 전체를 놓고 독자인 우리가 평가하느라고 쓴 말입니다. 허생은 확고한 이상과 탁월한 능력을 지녔지만 그걸 다 실현하지 못했고. 그러니 불만스런 현실과 그 현실을 지배하는 사람들에게 졌다고 본 겁니다. 도피했다고 볼 수도 있죠.

- ① 현실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운 대책을 제시했다.
- ② 관념적인 공리공론을 일삼는 지식 계층에 불과하다.
- ③ 양반이라는 계급적 한계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다.
- ④ 해결책을 제시했지만 실행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 ⑤ 명분을 중시하며 실리를 위해 구체적인 실천을 하지 않았다.

김해분성고등학교 (경남)

4. <보기>는 윗글에 나타난 재물에 대한 허생의 이중적인 태도를 정리한 것이다. ㉠, ㉡에 알맞은 말을 아래의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보기>	
긍정적	부정적
[사회적·공적 측면]	[개인적·사적 측면]
백성들의 삶을 풍족하게 한다.	(㉠)
현실의 모순과 문제를 해결해준다.	(㉡)
	돈(재물)은 재앙을 안겨 준다.

<조건>

- 윗글에서 허생이 말한 부분을 참고하여 ‘돈(재물)은 ~ 다.’ 형식으로 쓸 것.
- 띄어쓰기, 맞춤법, 형식을 지키지 않으면 감점

김해분성고등학교 (경남)

5. <보기>는 <허생전>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을 모두 고르면?

- <보기>
- ㉠ 신분 질서의 동요가 있었다.
 - ㉡ 변 씨는 상업을 통해 부를 축적한 신흥 부유층이다.
 - ㉢ ‘이완’ 대장은 무능한 당대의 지배층을 대변하는 인물이다.
 - ㉣ 작품 창작 당시 실학사상과 북학론(北學論)이 대두되었다.
 - ㉤ 이완 대장은 과거의 인습에 얽매어 새로운 변화를 거부하는 인물이다.
 - ㉥ 허생은 부국강병(富國強兵)과 관련한 세 가지 계책을 모두 실현해 낸다.
 - ㉦ 허생은 ‘장유유서(長幼有序)’와 같은 기본적 윤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이다.
 - ㉧ 허생이 북벌(北伐)을 위해 전략적으로 교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 나라는 ‘명나라’이다.
 - ㉨ 풍자소설로 지배층인 사대부의 무능과 허위의식을 비판한 한글 소설이며 고전 소설이다.

- ① 3개 ② 4개 ③ 5개
- ④ 6개 ⑤ 7개

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목적골에 살던 허생은 십년을 기약하여 글공부를 하던 중 굶주림에 견디다 못해 아내의 원성에 글공부를 접고 변 씨 부자에게 만 냥을 빌린다.

(가) 한편 만 금을 빌린 허생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길로 바로 ㉠경기도 안성으로 내려가 거기에 머물러 거처를 마련하였다. 안성 지방이 경기도와 충청도의 경계이고, 삼남 지방의 길목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거기서 대추, 밤, 감, 배, 석류, 귤, 유자 등의 과일들을 모두 시세의 곱절 가격으로 모조리 사들였다. 허생이 과일을 사재기하는 바람에 나라 안에서는 연회를 열거나 제사를 지낼 수 없었다. 얼마 지나자 허생에게 곱절의 가격으로 팔았던 장사치들이 도리어 열 배의 가격으로 되사 가게 되었다. 허생이 한숨을 쉬며 탄식하였다.

“겨우 만 금으로 한 나라를 휘청하게 만들었으니, 나라의 경제 규모를 짐작할 만하다.”

허생은 다시 칼, 호미, 베, 명주, 솜을 사 가지고 제주도로 들어가서 그곳의 말총을 다 거두어들였다.

“몇 해가 지나면 나라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지 못할 것이다.”

과연 얼마 있다가 망건 값이 열 배로 치솟았다.

허생이 늙은 뱃사공을 찾아서 물었다.

“바다 밖에 사람이 살 만한 빈 섬이 있던가?”

“있습지요. 언젠가 태풍에 표류하여 곧장 서쪽으로 사흘을 가서 한밤중에 어떤 빈 섬에 닿았습니다. 따져 보니까 중국의 사문과 일본의 장기도의 중간쯤 될 겁니다. 꽃나무가 절로 피며, 과일이 절로 익어 있고, 사슴들이 떼를 지어 다니고, 물고기는 사람을 봐도 놀라질 않았습지요.”

허생이 크게 기뻐하며,

“자네가 나를 그곳으로 데려다준다면 부귀를 함께 누리게 해 줘세.”

하니 사공이 그 말을 따르기로 하였다.

드디어 바람을 타고 동남 방향으로 가서 섬에 들어가게 되었다. 허생은 섬의 높은 곳에 올라서 사방을 둘러보고는 그만 실망하여 탄식하였다.

“땅이 고작 천 리가 못 되니, 무슨 큰일을 할 수 있겠는가? ㉡땅은 기름지고 샘물은 달콤하여 그저 돈 많은 늙은이는 될 수 있겠구먼.”

그러자 사공이 물었다.

“텅 빈 섬에 사람이라곤 없는데 도대체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 말이지요?”

“덕(德)만 있다면 사람이란 절로 모이게 마련이네. 덕이 없을까 걱정해야지. 어찌 사람이 없음을 근심하겠는가?”

<중간 줄거리> 허생은 변산의 도적들을 모아 돈을 나누어

1-(1) 대화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①③ 2.① 3.④ 4.② 5.(1)상대방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요청을 전달하였다. 부탁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상대를 비난하듯이 말하고 있다. (2)상황과 대상에 맞는 언어 예절을 지키며 다양성을 존중하고 상대를 배려해야 한다. 6.④ 7.④ 8.② 9.④ 10.③ 11.② 12.② 13.④ 14.① 15.⑤ 16.① 17.③ 18.(다)에서 화자의 '배고프지 않아? 여기 떡볶이 엄청 맛있대'라는 메시지는 표면적으로는 상대방의 배고픈 상태를 묻고 이 가게의 떡볶이가 맛있다는 정보를 전달하지만, 이면적으로는 함께 떡볶이를 먹고 가지 않겠냐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①화자의 이런 이면적 의도를 ②청자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③청자는 개인적 성향에 따라 말하기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배려해서 말했어야 한다. 19.① 20.② 21.① 22.① 23.⑤ 24.① 25.③ 26.③ 27.② 28.㉠은 준언어적 표현이고, ㉡은 비언어적 표현이다. 29.④ 30.③ 31.㉠준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 32.⑤ 33.④ 34.③ 35.① 36.② 37.③ 38.④ 39.⑤

1-(2) 영훈이의 역사 누리방

1.③ 2.④ 3.첫째, 선생님께 예의를 갖추지 않았다. 둘째, 특정 세대에서만 쓰는 말을 사용하여 선생님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4.⑤ 5.②6.① 7.소통 8.③ 9.② 10.① 11.③ 12.⑤ 13.② 14.① 15.③ 16.(1)청기와를 발견하고 깨달음을 얻기까지의 과정을 시간 순서에 따라 조직하였다. (2)자신이 찾은 것이 조선 시대 청기와라고 생각하고 기대감을 갖게 되었다. (3)청기와를 발견한 것을 계기로 깨달음을 얻게 되었기 때문이다. 17.④ 18.⑤ 19.① 20.② 21.⑤ 22.어떤 일에 확신을 가지려면 충분히 조사한 다음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2-(1) 등나무 운동장 이야기

1.① 2.② 3.② 4.(1)글쓴이가 등나무에서 얻은 감응 (2)건축물과 자연 사이의 감응 5.① 6.③ 7.④ 8.⑤ 9.㉠군수가 주민들에게 얻은 감응이다. ㉡작가가 등나무 순에서 얻은 감응이다. 10.⑤ 11.③ 12.③ 13.② 14.④ 15.① 16.② 17.① 18.② 19.② 20.① 21.④ 22.⑤ 23.② 24.① 25.③ 26.④ 27.③ 28.⑤ 29.㉠는 자연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필자의 건축관은 자연이 주인

이 되는 것이다. 30.③ 31.① 32.④ 33.⑤ 34.⑤ 35.④ 36.④ 37.① 38.② 39.④ 40.⑤

2-(2) 허생전

1.① 2.④ 3.④ 4.㉠돈은 도를 살찌울 수 없다. ㉡돈은 정신을 괴롭힌다.5.④ 6.④ 7.② 8.③ 9.⑤ 10.④ 11.③ 12.④ 13.① 14.① 15.③ 16.④ 17.④ 18.② 19.② 20.지배 계층이 북벌론을 주장했지만 그저 말뿐이며 주장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이나 의지가 없었던 것이다. 21.② 22.③ 23.① 24.④ 25.③ 26.① 27.④ 28.㉠예법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그 물건이 없다면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 ㉡사대부와 같은 예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생활에 어려움이 없다. 29.⑤ 30.⑤ 31.① 32.④ 33.② 34.④ 35.⑤ 36.④ 37.④ 38.명나라 후손들을 후대해야 한다. 청나라와 교류를 해야 한다. 39.③ 40.② 41.④ 42.② 43.④ 44.㉠유통 45.㉡교류 46.④ 47.① 48.① 49.③ 50.적극적으로 인재를 등용해라. 명나라 후손들을 후대해라. 청나라와 교류해라. 51.지배 계층이 북벌론을 주장했지만 그저 말뿐이며 주장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이나 의지가 없었다.

2-(3) 초신성의 후예

1.④ 2.② 3.③4.② 5.① 6.① 7.자신이 만든 원소들을 우주에 환원하여 수많은 생명이 만들어지도록 하였다. 8.① 9.⑤ 10.⑤ 11.④ 12.초신성 같은 사람들은 자신이 이룩한 재화, 기술, 지식, 능력 등을 아낌없이 사회와 나누는 사람들이다. 13.④ 14.③ 15.③ 16.(1) 초신성이-것이다. (2)땀-한다. 17.① 18.④ 19.⑤ 20.③ 21.⑤ 22.② 23.⑤ 24.③ 25.④ 26.① 27.④ 28.⑤ 29.⑤

3-(1) 올바른 발음과 표기

1.① 2.① 3.⑤ 4.③ 5.③ 6.③ 7.신고[신꼬], 선릉역[설릉녁], 갔는데[간는데], 늦게[늦께], 도착했다[도차켄따] 8. ⑤ 9.① 10.④ 11.② 12.㉠ [달근] ㉡ [다가페] 13.② 14.③ 15.③ 16.④ 17.② 18.② 19.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20.③ 21.② 22. ② 23. ④ 24. ⑤ 25. 구개음화, 구개음화는 음절의 끝소리 ㄷ, ㅌ이 형식 형태소 'ㅣ'나 반모음 'ㅣ'를 만나 구개음인 'ㅌ', 'ㅌ'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26.③ 27.④ 28.⑤ 29.⑤ 30.(1) 타라, 모음 탈락 (2) 입학, 거센소리되기 31. (1) [침:낙] (2) 유음인 'ㄹ'이 (3) 비음 'ㄹ'